

SK케미칼, 최창원 부사장 지분 증가

보유지분율 6.48%로 상승 ... 최태원 회장 지분율 6.84%와 차이 좁혀

SK케미칼이 7월15일 최창원 부사장의 보유지분율(보통주 기준)이 6.48%로 높아졌다고 공시했다.

SK케미칼의 공시에 따르면, 최창원 부사장은 7월14일과 15일에 걸쳐 보통주 19만8780주를 장내에서 매입해 현재 총 115만741주를 보유하고 있다.

한편,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케미칼 지분은 현재 6.84%(121만4269주)인 것으로 나타났다.

<화학저널 2004/07/16>